

# 해노래

해야 해야 붉은 해야 북을 치며 나오너라

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며 나오너라

해야 해야 붉은해야 징을 치며 나오너라

북 죽개로 물 떠먹고 쇠를 치며 나오너라

해야 해야 붉은 해야 구름 속을 나오너라

앞뒷문 다 열어 놓고 어서어서 나오너라

해야 해야 붉은 해야 구름 속을 나오너라

북 장구 둘러메고 어서어서 나오너라

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래 동요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해 노래입니다.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는 바닷가에서 멀지 않았어요. 엄마가 아침밥 차려 주면 후딱 먹고 오빠하고 같이 해엄치러 갔었답니다. 다섯 살 꼬마가 해엄을 치면 얼마나 컸겠어요? 그래도 오빠가 귀찮아하지 않고 잘 돌봐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. 세 살 위 오빠가 친구들과 신나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혹시 해가 구름 속에 숨어버리면 모래밭에 배를 깔고 등을 대고 이리 저리 누워서 자기 몸들을 두드리며 “해야 해야 나오너라~ 장구 치며 나오너라~” 하던 그 재미있는 모습이 생생하답니다. 아마도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은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간 것도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곧 방학이 오면,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까맣고 건강한 피부로 물과 숲 속을 다닐 여러분들에게 여름의 노래로 선물합니다.